

# 추천도서목록 치고는 허술한 점 너무 많다

## ‘한양대 교양필독서 100권’을 보며 느끼는 몇몇 아쉬움

책을 고르고 권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그것이 ‘꼭’ 읽어야 하는 책이거나, 이른바 고전이나 명작일 경우 사정은 더욱 어려워진다. 책을 골라 권하는 사람은 사람대로, 그 권유를 좇아 실제로 책을 읽을 사람들은 또 그들대로, 그 취향이나 지적 수준이 저마다 제각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각종 추천도서나 권장도서 목록 등이 국내외적으로 대단히 다양한 편차를 보이는 것도 그래서인데, 본지 145호(94. 3. 20)를 통해 약간의 ‘시비’를 걸었던 서울대 인문과학연구소의 ‘동서고전 200선 목록’도 그런 점에서 충분히 의의있는 것일 수 있다.

### 목록선정의 주제와 과정 불확실해

얼마전 한양대 출판원을 통해 선보인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에서 제시된 ‘교양필독서 100권’ 또한 마찬가지로 의미에서 일단 주목할 만한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우선, 서울대 목록이 고답적으로 보일 정도의 엄선주의로 말미암아 독자들의 접근이 쉽지 않은 데 반해 현실적으로 읽힐 수 있는 목록들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번역본일 경우 서울대 것과는 달리 구체적인 서지사항을 명시하고 있는 점 등은 한양대 목록만의 미덕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목록을 다시한번 꼼꼼히 살펴볼 경우, 그같은 미덕들에 못지 않은 문제들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된다. 총장이 머리말을 통해 “(우리의) 젊은이들이 세계 여러 나라의 젊은이들과 어깨를 겨루고 예지와 덕성을 기르기 위해 최소한 읽어야 할 책을 가려뽑아 엮은

것”이라고 자부하기에는 아무래도 허술한 구석이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이 목록 선정의 주제나 과정이 애매하다는 점이다. 한양대에 재직 중인 9명의 교수로 구성된 ‘교양필독서선정위원회’ 명의로 필독서 선정의 기준과 원칙은 명시돼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거쳐 목록들이 취합되고 걸러졌는지에 대한 언급이 없다. 그 결과 목록의 공적 권위나 설득력이 부족해 보이는 결함을 드러낸다.

‘바르게 사는 길’, ‘삶의 빛과 지혜’, ‘아름다운 세계를 찾아서’, ‘선현들의 발자취’, ‘더불어 사는 길’, ‘자연의 신비를 밝히는 등불’ 등 여섯 부분으로 나뉘어 자세한 해제를 달고 있는 목록들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살펴봐도 문제는 적지 않게 발견된다.

### 원전 해설한 2차문헌들 다수 포함

첫째, ‘필독서’라고 할 때 흔히 연상되는, 고전적 권위를 갖는 1차문헌 대신 그것들을 해설하거나 축약·부연한 2차, 3차 문헌들이 다수 등재돼 있다. 이는 관점에 따라서는 오히려 실제적인 책읽기로 이끄는 데 더 유효하다고 평가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충분히 접근 가능한 책인데도 1차 문헌이 아닌 2, 3차 문헌들이 필독서로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윤재근, 등지)

「목민심서로 배우는 백팔가지 지혜」(정정길, 가원)

### ‘한양대 교양필독서 100권’은

책을 읽거나 구하는 데 독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책들을 중심으로

목록이 구성돼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고답적인 추천도서목록들과

구별되는 미덕을 지닌다. 그러나,

목록선정의 실재가 지나치게

두루 포괄적이다보니 원칙과

전체적인 짜임새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결함도 또한 보인다.

등은, 이 목록이 적어도 대학생 수준 이상의 젊은 독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면, 마땅히 「장자」나 「목민심서」로 대체돼야 하는 게 옳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와함께

「아인슈타인의 생애」(쓰즈키 다쿠지, 전과 과학사)

「박연암의 문학과 사상」(김지용, 한양대출판원)

같은 책들은 아인슈타인이나 박지원에 관한 술한 2, 3차 문헌들 가운데 과연 그들이 유일하게 내세울만한 대표성을 갖는 책일 수 있느냐는 의문도 제기될적이다.

### 중복출판물 경우 특정한 판본만 제시

둘째, 이것저것 번역본이 많은 중복출판물

의 경우 특정한 한 판본만을 제시하는, 쉽지 않은 ‘용기’와, 때로는 ‘무모함’을 이 목록은 동시에 드러내고 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다.

「고백록」(성 어거스틴/최민순, 성바오로출판사)

「탈무드」(M. 토케이어/박인식, 육문사)

「논어」(이종은, 한양대출판원)

「소유냐 존재냐」(에리히 프롬/최혁선, 범우사)

「생활의 발견」(임어당/박병지, 육문사)

「역사란 무엇인가」(E H 카/권오석, 홍신문화사)

「삼국유사」(일연/이민수, 을유문화사)

「플루타크영웅전」(플루타크/이성규, 사다다리)

「역사의 연구」(토인비/지경자, 홍신문화사)

「백범일지」(김구, 하나미디어)

「제3의 물결」(토플러/유재천, 학원사)

알만한 사람은 다 알겠지만, 이중에는 善本으로 삼을만한 것과 함께 그렇지 못한 것들도 뒤섞여 있어 자칫 독자들을 오도할 우려가 적지 않다. 선정위원회측이 목록집의 앞머리에 “동일한 도서가 여러 출판사에서 출간되었을 때에는 필자나 역자 또는 서술방식 등을 고려하여 출판사를 선별, 지정하였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그 막연한 기준이나마 일관성있게 적용된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 이 목록집을 살펴본 이들의 중평이다. 또다른 목록선정의 원

호산방  
HOSANBANG Rare Books

호산방은  
30년후를 생각하는  
고서점입니다.

서울 종로구 서린동 136 한일빌딩 아케이드 7호  
전화 722-8029, 723-7431 팩스 722-6642

### 판매 도서 목록

- 00874 最新鮮英辭典 : 金東成 博文書館 1928 / 300,000원  
01150 Mahatma Gandhi His Own Story : C. F. Andrews · New York 1930 / 50,000원  
04151 鍼灸篇 : 筆寫本 / 100,000원  
04690 고린초 : 金壽星 文策社 1948. 10 / 100,000원  
04799 詩海韻珠 : 崔海鍾 漢城圖書株式會社 1937. 10. 노루지판 4冊 / 400,000원  
04854 李朝實錄朝鮮婚姻考 : 藤田東三 大同印書館 1941. 12 / 200,000원  
05421 八溪鄭氏續世稿 : 活字本 1800년대 (?) / 150,000원  
05509 금특전 : 한글필사본 / 50,000원  
05670 又石叢文集 : 金禎均 漢成圖書株式會社 1935. 2. / 50,000원  
05583 字典釋要 : 池錫永 匯東書館 1910. 10(3版) / 200,000원  
06072 農叢集 : 金昌協 農叢集重刊所 1928. 5. 15冊 / 1,050,000원  
06161 端宗哀史 : 李光洙 博文書館 1933. 11. (再版) / 200,000원  
06243 荀子集解 : 上海掃葉山房 石印本 6冊 / 50,000원  
06499 南朝鮮過度政府法令集 : 朝鮮行政學會 1947. 12 / 500,000원  
06646 無憂堂遺稿 : 曹錫休 鉛活字本 / 50,000원  
06923 經濟의 基礎知識 : 金亨燦 建國社 1948. 2. / 50,000원  
07545 申翼熙先生演說集 : 申翼熙 國民大學同窓會 1961. 5. / 20,000원  
07582 長崎의 鐘 : 永井隆 三一出版社 1950. 2. (7版) / 50,000원  
07593 里程標 : 張萬榮 新興出版社 1958. 10 / 30,000원  
08936 婦人辨士海城月(베니스의 상인) : 섹스피어(吳天卿譯) 새동무社 1922. 5. / 300,000원  
08941 한니탈 : 漢城圖書(株) 1921. 11. / 200,000원  
08964 農家要覽 : 癸丑 筆寫本 農桑類, 五穀日(의) / 200,000원

- 09050 符應經門要 : 趙維城 筆寫本 1636 / 500,000원  
09051 朱子陰符經考異 : 筆寫本 / 200,000원  
09326 野談集 : 金東仁, 尹白南 三文社 1948. 7. / 100,000원  
09398 시문의 回想 : 鄭漢波 新內性社 1959. 5. / 20,000원  
09425 春園書簡文範 : 李光洙 수협연구사 1956. 1. / 20,000원  
09758 美人論 : 卓哲秀 꿈의 科學研究所 1949. 5. / 100,000원  
09767 希望 : 安夕影 금풍도서주식회사 1948. 10. / 200,000원  
09818 靑龍 : 해병사령부정훈감실 1953. 8. / 100,000원  
09900 렌의 哀歌 : 毛允淑 文星堂 1954. 9. (8版) / 50,000원  
09960 魚眼圖 : 安章鉉 人間社 1957. 12. / 30,000원  
10028 衺逆의 苦惱 : 安斗熙 學藝社 1955. 11. / 50,000원  
10062 錢別의 瓶 : 高裕燮 通文館 1958. 1. / 20,000원  
10171 朝鮮史教程 : 全錫淡 乙酉文化社 1948. 5. / 30,000원  
10174 國民勞務運動 : 上龍基 國民總力朝鮮聯盟 1941. 11. / 10,000원  
10230 東京雜記 : 朝鮮光文會 1913. 12. / 100,000원  
10243 許生傳 : 蔡萬植 朝鮮金融組合聯合會 1946. 11. / 50,000원  
10247 三一神話 : 大宗教本司 1912. 4. / 200,000원  
10265 第二次世界對戰回顧錄 : 朱耀燮(譯) 國際文化協會 1950. 1. (再版) / 50,000원  
10275 羅馬史 : 玄采(譯) 日韓圖書印刷株式會社 1907. 8. / 300,000원  
10291 繪圖足本 地理大成 : 上海 石印本 16冊 / 1,000,000원  
10304 朝鮮衣服, 婚姻制度의 研究 : 洪珠瓊(외) 乙酉文化社 1948. 7. / 200,000원  
10311 朝鮮의 更生 : 梁村奇智城 朝鮮研究社 1935. 3. / 300,000원  
10318 山川의 香氣 : 金昌浩 科學出版社(光州) 1957. 12. (再版) / 50,000원  
10321 朝鮮의 故蹟 : 崔南善 東明社 1948. 2. / 50,000원



칙으로 “정평이 나 있고 꼭 읽어야 할 도서로 선정될만함에도 적절한 번역본이 없는 경우에는 부득이 제외하였다”는 엄격성이 표명되고 있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 최근의 베스트셀러들도 목록에 올라

셋째, “시중에서 얻어 볼 수 있는 유통도서에 한정하였다”는 원칙과 관련된 문제로서, 이 목록집에는 이른바 베스트셀러를 포함한 최근의 책들이 적지 않게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마라」
- 「빛 속에서」(미우라 아야코/황필연, 가톨릭 출판사)
- 「내 아들의 멋진 인생을 위하여」(황인수, 밀알)

-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는 편지」(워드/최병현, 삼중당)
- 「세상을 보는 지혜」(그라시아/두행숙, 동지)
- 「나의 문화유산답사기」(유홍준, 창작과비평사)
- 「거꾸로 읽는 세계사」(유시민, 푸른나무)
- 「닥터 노먼 배쑨」(고든 외/천희상, 실천문학사)
-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김대중, 김영사)
- 「재미있는 화학이야기」(사키가와 노리유키/문성원, 예문당)

등이 그 좋은 예들인데, 여기에는 ‘필독서’란 이름에 값할만한 세월의 검증을 충분히 거치지 않은 점 말고도, 책 자체로서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것들이 섞여 있다. 물론 이에

대해서도 선정위원회측은 “최근에 출간된 서적들은 각계 명사나 교수들의 추천에 따라 선정하였으나, 특히 그중에 그 내용이 널리 알려졌거나 정평이 나 있지 않은 서적들은 선정위원들이 일일이 읽어서 그 가치를 검증하도록 하였다”고 밝히고 있어 일단 안전판은 마련해 놓고 있다.

넷째, ‘교양’ 필독서로 보기에는 아무래도 어색한 기능적인 도서가 다수 포함돼 있어, 선정된 텍스트들의 무게가 저마다 들쭉날쭉한 점도 문제로 지적될 만하다. 몇가지 예를 들자면

- 「적극적 사고방식」(노먼 필/정성호, 삼일서적)
- 「우리말의 예절」(국어연구원, 조선일보사)
- 「생각하는 힘을 기르는 문장력 향상의 길잡이」(서정수, 한강문화사)
- 「지구를 살리는 50가지 방법」(지구를 위한 모임/노혜숙, 현암사)
- 「손바닥 경제」(박원배, 세계절)

등이 그것들이다. 이와함께

- 「종교학 입문」(스트렝/정진홍, 대한기독교서회)
- 「불교를 알기 쉽게」(서종범, 밀알)
- 「생활윤리」(전영길, 한국문화사)
- 「사회학의 길」(권오훈, 한양대출판원)
- 「법과 사회정의」(김철수, 서울대출판부)
- 「환경의 이해」(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

등 특정분야나 과목에 관련된 입문서나 개론서가 끼어있는 점 또한 평지돌출식의 부자연스러움을 드러낸다.

마지막으로, 사소한 것일지도 모르나, 이 목록집을 만든 주체와 관련된 문제가 있다. 즉, 대학 설립자를 비롯해 한양대에 재직중인 교수들의 저술 및 이 대학 출판부(출판원)에서 펴낸 책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는 것인데, 이 역시 목록선정의 공정성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만한 충분히 이유있는 근거가 될 수도 있다.

#### 엄정한 권위보다는 구체적 실용성에 초점

우선 눈에 띄는 문제들을 중심으로 ‘한양대 교양필독도서 100권’에서 느끼는 아쉬움을 거칠게 나열해 보았지만, 앞서도 언급했듯 이 목록에도 나름의 의의는 분명히 있다. 무엇보다도 이 목록은, 책을 읽거나 구하는 데 독자들의 접근이 용이한 책들을 중심으로 짜여져 있다는 점에서 종래의 고답적 도서목록과 구별되는 미덕을 지닌다. 다만, 목록선정의 실체가 지나치게 두루 포괄적이었다보니 원칙과 전체적인 짜임새가 느슨해질 수밖에 없는 결함은 있다. 그런 점에서 이 목록은 ‘꼭 읽어야 할 양서’라기보다는 ‘읽어두면 괜찮은 책’을 중심으로 선정됐다고 보아도 아주 틀린 말은 아닐 듯싶다. 엄정한 권위보다는 구체적 실용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인데, 그러나, 한 대학이 만들어낼 수 있는 추천도서목록으로 결코 최상의 것은 못된다는 아쉬움은 여전히 남는다.

—강철주 기자

### 神市組織史

— 5事組織辨證 —

■ 李康植 著 / 신국판 / 20,000원  
그동안 〈古記〉에 기록된 〈主〉字의 의미를 근대의 연구자들은 대부분 동사로 파악하여 해석해 왔으나 본서에서 저자는 많은 문헌을 일일이 검토 고증하여 첫째 神市の 〈主殺·主命·主病·主刑·主善惡〉을 명사로 보고 官名 내지는 組織名이며 5事 조직이라는 변종과, 둘째 神市の 3倍5事 조직이 3神5帝사상에서 형성되었으며 현대조직론의 3대관리 5대업무기능이라는 변종과, 셋째 神市の 3神5帝사상이 기능론이며 과정론으로서 우주론이라는 변종을 하고 있다.

### 遺 芳 集

■ 趙素昂 著 / 신국판 / 10,000원  
본서는 1905년 乙巳조약을 체결하여 국권을 피탈당한 이후 순국한 閔泳煥으로부터 1932년 尹奉吉의 上海 虹口公園 의거에 이르기까지, 自決로 향거한 義士, 烈士, 반일의병 전쟁을 전개한 인물, 헤이그 특사, 만주지방의 독립군, 일제요인 및 관계 당국에 폭탄을 투척한 義士 등 81명에 대한 생애, 활동 업적 등을 사진과 함께 개인별로 정리한 것으로 우리 나라 항일민족독립운동을 연구하는데 크게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

### 甲午農民戰爭原因論

■ 具良根 著 / 신국판 / 12,000원  
본서는 갑오농민전쟁발발 100주년을 기념하여 출간된 것으로, 당시 조선왕조의 부패한 사회경제적인 여건 위에 일본의 경제사적인 침탈이 가해짐으로서 전쟁을 가속화 내지는 직접 도화시키고 있는 과정을 체계있게 정리하고 있다.  
또한 이제까지 수많은 농민군을 학살하고 전쟁을 진압한 세력이 관군이 아니라 실은 일본군이 모든 주도권을 가지고 관군을 조정하였다는 것을 가능한 모든 자료를 철저히 고증하여 고발하고 있다.

### 韓 國 文 苑

■ 趙素昂 편저 / 신국판 / 18,000원  
본서는 民族主義 歷史학자인 趙素昂이 扶餘로부터 朝鮮末期에 이르기까지 2천여년 동안 우리 先祖들이 남긴 名文秀句를 뽑아 편집한 것으로서, 上篇(文)과 下篇(詩)로 나누어져 있으며, 上篇에서는 扶餘로부터 朝鮮朝에 이르기까지 105名 143편의 〈文〉을, 下篇에서는 高句麗로부터 朝鮮朝에 이르기까지 151名 450편의 〈詩〉를 選定하여 收錄하고 있다.  
또한 6篇의 渤海文을 실어 저자가 渤海사를 한국사로 인식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어 저자의 역사인식이 民族主義 史家들과 脈을 같이 하고 있음도 알 수 있다.

한국학전문  
도서출판

아세아문화사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48-24, 전화 279-8161~3, 팩스 272-8823